

건강하게 사는 약속 인하대병원이 이루어갑니다

인하대 병원

[www.inha.com](http://www.inha.com)

09·10

2008 Nov·Oct Vol. 71



2008. 09+10

# CONTENTS

Sept. Oct Vol. 71

05	월례조회사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두가 같은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07	Well-being Report	전라북도 순창의 장수 비결
10	의학정보 1	척추종양, 사이버나이프로 치료
12	의학정보 2	스트레스와 편두통
14	건강책갈피	함께 먹으면 득이 되는 음식, 해가 되는 음식
16	센터소개	당뇨비만센터
20	기획인터뷰	인하대병원에는 6명의 훈남 간호사가 있다
23	글이 머무는 풍경	몽골 -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꿈의 나라로 생각 스리랑카 - 한데 뭉쳐 나눔을 실천하는 효율적인 의료봉사
26	특목약물상담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
27	119 응급상황	가을철 발생 사고주요 - 벌쏘임, 뱀물림
28	금융정보	Tax Planning - 제대로 알면 큰 재테크 수단
30	동문탐방	코코이비인후과
31	개원의 탐방	삼성산부인과
32	감사의 글	많이 칭찬하고 홍보하며 추천합니다~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6	알립니다	인사동정 / 파랑새소식 / 자원봉사안내 상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II / Global Inha 퀴즈 퀴즈 제45회 / 발전기금 조성 / 무료공개 강좌

# 남겨진 가을

이재무 | 시인

움겨진 손 안의 모래알처럼 시간이 새고있다  
집착이란 이처럼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네가 가고 나면 내게 남겨진 가을은  
김장 끝난 텃밭에 씨락눈을 불러올 것이다  
문장이 되지 못한 말(語)들이  
반쯤 걷다가 바람의 뒷발에 채인다  
추억이란 아름답지만 때로는 치사한 것  
먼 훗날 내 가슴의 터엔 회한의 먼지만이 봄빛 것이다  
"젖은 얼굴의 달빛으로, 흔들리는 풀잎으로, 서늘한 바람으로,  
"사선의 빗방울로, 박 속 같은 눈 꽃으로"  
너는 그렇게 찾아와 마음의 그릇 채우고 흔들렸지  
아 이렇게 숨이 차 사소한 바람에도 몸이 아픈데  
구멍난 조롱박으로 퍼올리는 물처럼 시간이 새고 있다

#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두가 같은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인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자 수확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인하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매우 무덥고 힘들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병원은 좋은 진료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에 전 국민의 눈과 귀를 TV앞으로 붙들어 맨 베이징 올림픽의 각본 없는 드라마의 진한 감동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러한 감동 뒤에는 선수들의 피땀 흘린 훈련이 있어서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병원도 지난 7월에는 인하가족 모두가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진료실적이 병원 개원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진료수입은 지난 5년간 평균보다 약 10% 이상 높은 170억원이 넘는 실적을 나타냈으며, 수술건수도 하루 80건이 넘어 한 달간 1,563건, 재원환자도 88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하지 못한 부분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투자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인하가족 여러분이 병원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그 속에서 고취된 자신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하여 절대 강자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투혼을 불사르고 땀방울을 흘린 선수

였습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 순간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병원은 이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또한 인프라를 갖춘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Big 5’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보낸 현 시점에서 지난 6개월의 일들을 돌아켜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 이룩한 일들이지만, 그 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사건들입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소화기센터 개소, 많은 첨단장비 도입 운영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큰 행사들만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
2. 당뇨-비만 심포지엄
3. 인하 나노클리닉 심포지엄
4. 바이오산업 발전 심포지엄
5.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A’
6. 주한 몽골대사관과 지정병원 협약 체결
7. 장례식장 재 오픈
8. 국제의료 포럼 개최
9. USC와 교수 교류 협력방안 협의
10. 뉴욕, LA, 하와이 - 해외 환자유치 및 홍보활동



11. 6개 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12. 환경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선정
13.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과 지정병원 협약 체결
14.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 대한항공, 헬스조선 공동
15. 중국 청도 인민병원과 진료협력 MOU 체결
16. 하계 의료봉사 실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17. 국내 최초 미국 관광객 한국 의료서비스 체험 방문
18. 몽골 의료봉사
19. 스리랑카 의료봉사
20. 서바이벌 우승자, 권을 홍보대사 선정
21. 줄기세포 연구소의 법인 설립
22.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건강검진 부문)

지난 상반기 동안 이룬 업적들을 보면 우리의 잠재능력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의료기관평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의료 관광객 유치 등등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것이 100%성공이 되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는 외부병원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 병원 센터 운영을 견학하러 옵니다. 이 모든 것이 병원장 이하 임원들뿐만 아니라 인하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우리의 업무를 성취하려는 열정의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자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났겠지만, 인하가족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다음 가정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며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천하를 통치하는 것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려우며, 가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행복하려면 깨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이 행복하려면 지난 번에 내부 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관계가 '돈독함' 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신뢰' 하고 '존중'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돌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원인이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올라가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석학은 '행복하려면 progress하라' 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making harmony with change, 변화의 harmony, 변화에 조화롭게 적응해나가는 것이 행복이다." 특히 요즘 시기에 맞는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토인비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인데, 우리 인하를 보면 '인' 은 innovation, 변화입니다. '하' 는 harmony이죠, 조화로운 순응이 될 수 있는데 토인비 석학의 말씀이 바로 인하에 함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여러분 가정에도 또한 우리 인하의료원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많이 맺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3일  
인하의료원장 이 두 익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할 만큼 급속한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장수'에 관한 관심은 여전한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진짜 장수라고 말한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이 모여 사는 장수마을에 대한 궁금증은 끝이 없다. 그 마을에 가면 장수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마을인 전라북도 순창의 장수비결을 알아보자.

## 노인 많다고 아니고, 활력 넘쳐야 진짜 장수! 매운 고추장 맛이 순창의 장수 비결





▲ 지금도 흥이 나면 장구채 드는 박복동 (105세) 할머니. 허리는 여전히 꼿꼿합니다.



▲ 순창의 장수 식단.

영화와 TV드라마의 배경으로 많이 촬영될 만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순창은 인구 10만 명 당 100세 이상 되는 노인 비율이 28.9명으로 전국에서 장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10월에 열리게 될 '건강 장수 백세인 축제'로 바쁜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순창의 장수비결은 무엇일까?



###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단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순창은 물이 구슬같이 맑다하여 '옥천골'이라 부른다. 이러한 쾌적한 자연환경은 세계적인 장수지역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다.

자연 지리적 특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특성 때문에 갖게 되는 생활습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장수촌인 파키스탄 훈자의 장수이유는 고산지대인 경우 높은 지역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 특성에 맞게 형성되는 생활, 식습관이 장수비결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적절한 예가 된다.

순창의 자연환경은 좋은 물과 적당한 햇빛 그리고 섬진강 줄기에 위치해 있고 공장 지대가 없어 장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

발효에 적합한 기후조건 덕에 고추, 콩을 주원료로 하는 고추장, 된장 등의 발효소스와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김치' 등의 발효식품, 그리고 이와 함께 곁들이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장수비결 중의 하나다.

100세인의 식습관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장수 식단이 고유의 전통식단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순창 노인이 장수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고추장을 비롯한 청국장, 된장 등의 발효식품인데 온화한 기온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은 발효식품에 최적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발효 식품의 자연스러운 섭취는 질병 예방과 장수에 일조를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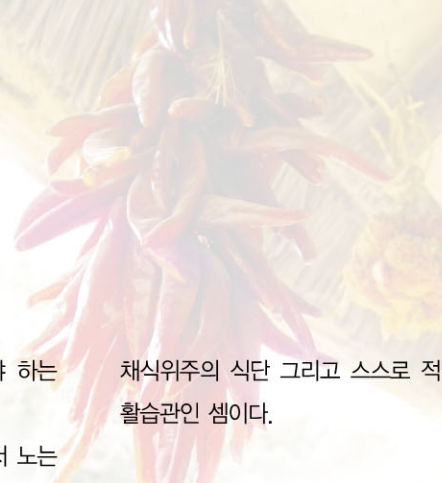
예로부터 물맛 좋고 양질의 고추, 콩 등을 생산하는 고장으로 유명한 순창 지역이 전국적인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것도 이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 소일거리는 물론 방 청소, 몸단장도 O. K

최근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장수마을은 콩과 마늘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순창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콩 자체에 들어 있는 영양이나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성분을 섭취하는 식습관도 있





겠지만 농사를 하기위해 역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거리가 장수에는 단단히 한 몫을 한다.

100세를 넘긴 순창의 장수노인들은 그저 편하게 앉아서 노는 일이 없다. 평소 직접 방 청소를 하고 몸단장에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콩을 두드려 널거나 고추 다듬는 일 등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실제로 순창의 장수노인들은 농사를 일이라 생각지 않고 운동이라 생각하며 내 몸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인다. 여기에 순창에서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가 담겨있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다고 장수 마을이 아니라 여유와 보람을 누리는 활력이 넘치고 주도적이고 독립적 생활을 하며 멋과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순창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효' 문화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노인 중심의 생활 형성도 장수비결 중 하나로 꼽는다. 아울러 열린 공간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설령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밥을 지어 먹으며 함께 농사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 활달하게 지내는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도 장수 비결이다.

결국 순창의 가장 중요한 장수 비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전통 발효식품과 나물 등의

채식위주의 식단 그리고 스스로 적당한 일을 찾아서 하는 생활습관인 셈이다.

순창군은 하늘이 준 장수 조건을 그저 혜택으로만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군청 내 '장수복지과'를 신설해 우리나라 제1의 장수촌으로서 차별화된 건강장수 인프라 구축 및 장수 시책을 진행하여 세계 속의 장수마을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 있을 '건강장수백세인 축제'를 한창 준비 중인데 장수마을인 순창의 명성을 다시 알리는 한마당이 될 것이다.

마을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 일거리를 위한 선진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이 아닌, 노인들의 여유와 보람을 누리는 '토종 장수마을'로 발전시킬 순차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순창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말이다.

순창은 이제 진정한 웰빙을 이끌며 지구촌 세계의 장수마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자료협조 : 순창군청 장수복지과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 Well-being Story

### 장수부부 회혼례



예로부터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결혼 60주년이 되는 해에 거행하는 식을 회혼식이라 하여 가장 성대함 의례로 꼽았다. 회혼식을 맞게 되면 많은 하객과 친지들이 식장에 준비된 병풍에 서명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는데

이 병풍을 만인병이라 한다. 특히 만인병에 축수서명을 하면 서명한 본인도 장수한다하여 회혼식 소문만 나면 수 백릿길을 찾아와 축수서명을 한다는 유래가 있다.

### 순창전통장류체험관

순창장류체험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고추장인 '순창전통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고 순창전통고추장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시식해 볼 수 있는 열린 체험의 공간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순창전통고추장 만들기, 순창전통고추장 요리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맑고 깨끗한 순창전통장류체험관은 소중하고 이색적인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문의전화 : 063-650-1813).

칼 대신 방사선으로 수술하고

# 척추종양, 사이버나이프로 치료

미국 연수 중 처음으로 로봇 사이버나이프에 대한 치료결과를 보게 되었고 2008년 4월에 미국 스텐포드 대학과 샌디에고 로봇 사이버 나이프 센터의 방문을 통해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술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최근에는 로봇 사이버 나이프 수술에 폭 빠져 있습니다. 로봇 사이버 나이프를 통한 방사선수술에 대한 소개가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치료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 y b e r K n i f e



한마디로 방사선 수술이란 칼 대신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성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자에게서 방사선적인 검사(CT, MRI, PET 등)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정확한 좌표를 얻어 위치를 결정한 다음 신체 내 특정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켜 조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며 신체를 절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침습적 치료 방법입니다.

## 척추 방사선수술의 방법

척추 정위 방법의 발달로 척추에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척추 방사선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척추 방사선수술을 통해서 종양 조직에 치사량의 고선량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종양의 국소

완치를 이루게 되는데, 척추 종양의 경우 종양의 진행(local progression)이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종양의 국소 완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국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척추종양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척추 방사선수술은 비침습적 수술이므로 MRI와 CT 영상 등 방사선 영상과 병소 위치 추적 장치의 도움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 외부적 요인 혹은 환자의 내부 장기 운동 등 병소 위치 변이는 수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척추 방사선수술에서 병소에 대한 국제 정확도(localization accuracy)는 수술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수술에 요구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포함한 병



**윤승환 교수** | 신경외과

- 전문분야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 진료시간 : 신경외과 외래-화(오후), 금(오전)  
사이버나이프센터-수(오후), 금(오후)
- 문의 : 신경외과 ☎032-890-2370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소의 국제 정확도는 1mm 이내입니다.

척추 방사선수술은 영상정보만을 가지고 수술 계획을 구성하므로 획득한 영상의 촬영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왜곡 현상을 감소시키고 해부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 CT 영상과 MR 영상을 융합(image fusion)하여 수술 계획을 작성합니다. 수술 계획 시 병소가 방사선에 민감한 구조인 척수신경 등에 근접 혹은 밀착되어 있는 경우 병소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고 척수신경은 방사선 조사를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는 세기 조절 방사선수술(Intensity modulated Radiosurgery)방법과 저분할 방사선수술(Hypo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surgery)을 병용하여 선택합니다.

수술 계획에 의한 방사선수술 중에는 병소 중심 좌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추적 관찰과 필요시 환자 위치를 보정하면서 시술하며 이는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 척추 방사선수술의 임상 적용

### 1. 전이성 척추 종양에 대한 방사선수술

전이성 척추종양은 전체 암 환자의 70%에서 나타나며 가장 흔한 형태의 골 전이종양입니다. 척추 전이가 있는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척수 압박에 의한 신경학적 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압성 통증을 호소하는데, 최근 전신암의 치료 방법의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율 및 생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전이성 병소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말기 암 환자도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전이성 병변의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이성 척추 종양의 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척추 전이로 인한 통증 완화
  - 2) 신경학적 마비의 회복, 안정화 및 예방
  - 3) 국소 종양의 진행에 대한 국소완치
- 실제로 척추 전이로 인한 통증으로 일반 진통제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마약(모르핀) 투여에도 통증을 억제할 수 없는 환자에서 로봇 사이버 나이프를 통한 치료 중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 양성 척추 종양에 대한 방사선수술

양성 척추 종양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침윤성 종괴를 형성하므로 경험 있는 외과 의사의 경우 비교적 낮은 합병증이나 유병률 내에서 외과적 절제를 통한 국소 완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완전 절제의 경우 재발의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외과적 절제 수술이 양성 척추 종양 치료에 중요한 치료 원칙으로 선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수술의 발달은 양성 척추 종양에 대하여 비관혈적 수술법인 척추 방사선수술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중요한 대체 치료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 3. 척추 혈관 질환 (동정맥기형)에 대한 방사선수술

척수 동정맥기형과 같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미세현미경 수술과 혈관내 색전술 이외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정위 방사선수술이 대두되고 있다. 로봇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로 병소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동정맥 기형 혈관의 폐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에서는 올해 2월 사이버나이프 도입, 3월부터 본격적인 진료하여 많은 치료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와 편두통

# 스트레스, 확~ 날려 버려~!!!

왜 머리가 자주 아릅니까?

어느 두통약 광고는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당신이 남보다 더 스트레스에 민감한

자율신경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Stress

### 편두통은 자율신경계의 비정상적 반응

흔히 신경 쓰이는 일을 스트레스라고들 합니다만,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며,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나타나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편두통은 자율신경계의 비정상적인 반응이기에, 우선 자율신경계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이 강해지는 상황은 공포영화를 볼 때입니다.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손발의 혈관이 수축하여 차가워지고, 식은 땀이 나면서, 장 운동은 멎어버리고, 특히 신경이 과민해져, 바스락 소리에도 놀랍니다. 동물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심폐기능 및 혈액순환이 왕성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장치가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이 강해지는 상황은 편하게 쉬면서 맛있는 음식

식을 먹는 때입니다. 입에 침이 고이고, 장에 피가 돌면서 장 운동이 항진되며,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이를 에너지원으로 몸에 저장합니다. 반면 맥박과 호흡은 느려지고,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신경도 둔해져 졸음을 느끼는 편안한 상황이 됩니다.

자율신경의 작용은 항상 쌍으로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일하고 나면, 이를 바로잡는 부교감신경의 반작용이 서서히 뒤따르면서 몸의 긴장을 스트레스 이전의 안정된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편두통 환자들은 부교감신경의 반작용이 지나쳐 안정상태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정상인과 반대로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를 감싸는 혈관이 정상인과 반대로 확장되고 피가 몰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여 욱신거리는 통증을 일으킵니다. 흔히 편두통 환자들이 머리에 피가 몰리면서 아프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신경의 기능을 강화하고 머리가 더 잘 돌



송은철 교수 | 신경과

• 전문분야 : 말초혈관

• 진료시간 : 월(종일), 목(오전), 금(오후)

• 문의 : 신경과 ☎032-890-3860

게 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오히려 만성 스트레스로 의욕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노인성우울증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에 이를 가성치매, 즉 진짜가 아닌 가짜 치매라 부릅니다.

몸에 저장된 영양분은 위급한 상황에서 분해되어 혈관을 통해 온 몸에 공급되고 즉각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준비를 마칩니다.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저장된 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지지만, 비만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더 살이 찍니다.

흔히 심한 충격을 받거나, 통증을 느낀 경우 속이 울렁거리면서 의식을 잃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마치 전압이 과부화된 두꺼비집 퓨즈가 끊어지듯 부교감신경의 폭주하여 사지의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결국 뇌에 피가 부족하여 실신하게 되는 병입니다. 위에 열거한 병들은 모두 편두통 환자에서 자주 동반됩니다. 결국 병의 원인이 같기 때문입니다.

### 편두통 동반 증상 - 체하고 메스꺼리고 머리가 멍

편두통 환자들은 대개 주변에서 성격이 예민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잘 체하고 속이 메스꺼리며 어지럽고, 조금만 잠을 설쳐도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구름 낀 듯 무겁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오전 내내 집중도 안되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편두통 동반 증상이고 환자들은 두통보다 이러한 증상들을 더 힘들어 합니다.

특히 오래된 편두통 환자들은 이차적인 근육긴장으로 인한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상당수에서 두통이 오

는 머리와 같은 편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원인은, 오랜 두통이 머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극된 말초 신경이 다시 온몸의 감각 신경이 모이는 뇌의 시상(thalamus)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실제 팔과 다리의 말초 신경에 문제가 없어도 환자는 팔과 다리의 감각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을 우울증, 만성위염, 목 디스크 심지어는 중풍이라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지만, 말초신경검사와 목과 머리의 MRI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정작 환자 본인은 자신의 오래된 두통이 이러한 증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의사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자체와 더불어, 편두통의 동반 증상들도 꾸준한 편두통 예방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호전됩니다.

편두통은 특히 여성에서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여성에서 폐경 이후 두통이 좋아지므로 치료가 꼭 불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무리한 운동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조미료가 많은 음식이나 와인, 치즈, 불규칙한 식사와 다이어트, 수면 부족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개 감기만 걸려도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작은 수술조차도 큰 스트레스가 되어 두통을 일으킵니다. 약물도 유발요인이 됩니다.

항상 무리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 태도와 매사에 욕심내지 않는 느긋한 마음가짐, 그리고 적절한 약물요법이 병행되어야 편두통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Good Food  
&  
Bad Food

## 함께 먹으면 득이 되는 음식, 해가 되는 음식

임현숙 팀장 | 영양팀

음식궁합(飲食宮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을 함께 섭취할 때 식품끼리 서로 잘 조화가 되면서 소화뿐만 아니라 섭취 영양소의 상호상승작용 등 영양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즈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식생활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시대에서 입으로 음식을 먹는 시대로 변화되어 더 좋은 맛의 음식을 가려 먹게 되고 맛과 멋의 추구, 건강을 추구하는 식생활 형태로 바뀌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들의 궁합을 알아보고, 우리 몸에 보다 유익한 식생활을 하도록 해보자.

## 함께 먹으면 득이 되는 음식

### | 토란과 다시마 \_ 토란탕 |

다시마는 토란의 수산석회 등의 유해성분의 체내흡수를 억제시키는 특성을 가지며, 다시마의 감칠맛은 토란의 맛을 부드럽게 한다

### | 두부와 미역 \_ 두부미역국 |

콩의 사포닌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 안의 요오드가 많이 빠져나가므로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과 궁합이 맞는다.

### | 참쌀과 대추 \_ 약밥 |

참쌀에는 지방이 적으며 칼슘과 철분, 섬유소의 함량이 적은 것이 결점인데 이것을 보완해주는 식품이 대추와 참기름, 잣이다. 또한 대추의 붉은색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 외에 식욕을 증진한다.

### | 불고기와 씬(들깻잎) |

들깻잎에는 다른 채소가 따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있으며 양질의 섬유소를 가지고 있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 생선회와 생강 |

생강에는 장염의 비브리오균에 대한 살균력, 식욕증진과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단백질 분해효소).

### | 초콜릿과 아몬드 |

아몬드의 지방에는 인지질인 레시틴이 많아 초콜릿의 테오브로민이 뇌나 중추신경에 주는 지나친 자극을 중화 억제하는 효과를 내며, 고소한 맛과 따뜻한 곳에 두어도 쉽게 녹지 않는 장점이 있다.

### | 녹즙과 식초 |

녹즙의 가장 소중한 성분인 비타민 C는 대단히 예민해서 파괴되기 쉽다. 녹즙을 만들 때 식초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것의 손실을 쉽게 막을 수 있다.

## 함께 먹으면 해로운 음식

### | 오이와 무 |

무와 오이를 섞으면 무의 비타민 C가 많이 파괴 된다. 오이를 썰면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온다.

### | 도토리묵과 감 |

감이나 귤과 같이 타닌이 많은 식품을 곁들여 먹으면 변비가 심해질 뿐 아니라 빈혈증이 나타나기 쉽다. 적혈구를 만드는 철분이 타닌과 결합해서 소화흡수를 방해한다.

### | 토마토와 설탕 |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B는 인체 내에서 당질 대사를 원활히 하여 열량 발생 효율을 높인다. 설탕을 넣은 토마토를 먹으면 비타민 B가 설탕당사에 밀려 그 효과를 잃고 만다.

### | 미역과 파 |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 파 속에 인이 많이 들어있어 미역 속에 들어 있는 칼슘의 흡수에 방해한다



### 김과 기름 \_ 김구이

참기름 또는 들기름 사용은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에 유익하다(오래된 기름은 유통 중 공기와 햇빛으로 산화되어 유해성분 생김).



### 아욱과 새우 \_ 보리새우 아욱국

강장식품으로 여겨온 새우(산성식품)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와 C, 섬유질을 아욱(알칼리성식품)이 보충한다.



### 장어와 복숭아

장어를 먹고 복숭아를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이 장에 자극을 주어 지방이 소화되기 위해 작게 유화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장어의 지방 소화에 이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 계와 감

계는 식중독균의 번식이 대단히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인데다 감은 수렴 작용을 하는 타닌 성분이 있어 소화불량을 수반하는 식중독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당뇨내분비/비만센터 진료안내

2008년 08월 18일 월요일 14:54

진료실	1	3
진료 의사	오윤주	남문희
대기 1	김재영	
대기 2	김혜지	
대기 3	박순호	
대기 4		
의면대정시간	0	60

병원 1층 525호 내분비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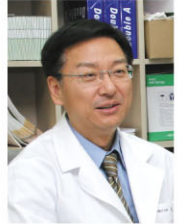
당뇨내분비센터  
Diabetes Endocrinology Center  
비만센터  
Obesity Center



# 환자의 비밀 보장과 맞춤치료를 위해 개설된 당뇨비만센터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게 전문치료를 합니다!

## Diabetes Endocrinology Obesity center

김용성 교수 | 당뇨비만센터장 | 내분비내과  
• 전문분야 : 당뇨병, 비만, 내분비  
• 진료시간 : 월(오후), 화(오전), 목(중일), 금(오전)  
• 문의 : 당뇨비만센터 ☎032-890-3360, 2215



당뇨비만센터 개설의 배경은 당뇨병과 비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전문 치료가 필요한 데 있었다. 병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센터가 마련되었고, 9월부터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운동처방사가 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고, 환자들도 대단히 만족해하며 우리 병원이 최고 병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뇨비만센터의 입구는 당뇨내분비센터와 비만센터로 나누어 비만 환자의 비밀(?)은 드러나지 않게 배려하였다.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접수대는 낮게 하였고 뒤로는 센터 명칭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홀 중앙에는 환자가 대기하는 공간을 두었고, 당뇨와 비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채혈실과 신체계측실, 영양 상담실이 있다. 당뇨병과 내분비 환자를 위해서 진료실 3개와 당뇨병 교육실, 합병증검사실을 마련하였다. 비만환자를 위해 비만상담실과 진료실, 그리고 비만과 체형관리를 위한 비만치료실을 배치하였다.

### 당뇨내분비센터의 진료와 치료

당뇨병은 진단이 되기 이전에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명한 임상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혈당검사는 채혈 당시의 혈당 정도를 알 수 있지만, 2~3개월간의 전체적인 혈당 정도는 당화혈색소를 이용한다. 센터에서는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외래 방문 당일에 결과를 볼 수 있어 혈당검사만을 위하여 미리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은 없어졌다. 다만 지질검사나 간검사와 같은 혈액검사는 바로 볼 수 없으므로 센터에서 채혈 후 다음 외래 방문 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뇨병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우리 몸의 눈, 신장, 신경, 혈관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치료는 철저한 혈당조절을 통하여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합병증은 당뇨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증상이 심하게 진행한 후에야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각 분야의 전문의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당뇨병이 20년 이상 진행되면 환자의 60% 이상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며, 실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당뇨인은 눈 합병증의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기에 발견하여 망막을 광응고술(레이저 치료)로 치료하면 망막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간단한 안저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당뇨병은 혈관에 이상을 초래하여 신장병,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질환을 초래한다. 센터에서는 자신의 혈관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맥파 전파속도검사를 바로 측정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증을 알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족부병변이 흔하므로 정기적인 발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발가락과 발뒤꿈치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와 발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검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전류인지역치검사 장비로 신경병증을 검사할 수 있다.

## 비만센터의 검사와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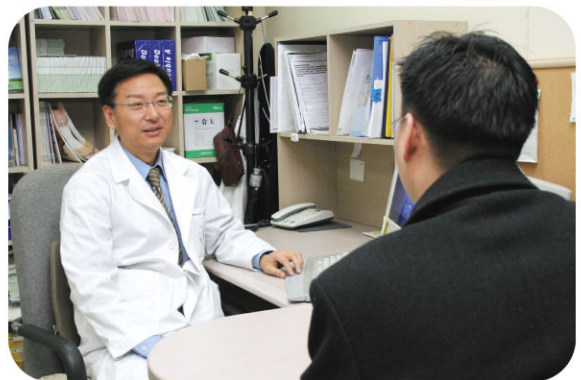
비만은 먼저, 동반되어 있는 질환과 몸속의 지방량을 기본으로 측정하고 내장지방의 정도를 CT를 통해 검사한다.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그 저장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다. 피하지방보다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이 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세포에서 나온 지방산이나 호르몬은 바로 간으로 들어가므로 피하지방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으면 비만에 동반되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된다.

그러면 몸속의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부 CT를 찍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므로 신체계측실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허리둘

### CHECK LIST

#### 당뇨인에서 필요한 정기적인 검사

●혈액검사	혈당검사	수시로, 적어도 1개월
	당화혈색소 검사	2~3개월
	지질검사	6개월~1년 간격, 이상시 3개월
●소변검사	단백뇨 검사	매년
	●눈 검사	안저검사
		이상시 3~6개월
●족부검사	혈관, 신경검사	매년
●혈관검사	맥파전도속도검사	매년
	경동맥초음파검사	



레를 재는 것이다. 배꼽 주위의 허리둘레를 재어서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 내장비만이 있다고 진단된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비만에 속하고, 복부비만의 비율도 25% 정도이다. 복부비만에서 우리가 주의할 기울여야 할 부분은 비만은 아니면서 복부비만만 있는 경우이다. 체질량지수가 25kg/m<sup>2</sup>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되는데 이 수치 미만인 반면 허리둘레는 90cm/85cm 이상으로 복부비만이 진단되기도 한다. 흔히 '마른비만' 혹은 TOFI (thin outside, fat inside) 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젊은 남자에서 비만 유병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이 경우도 물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

복부비만, 내장비만을 줄이기 위한 왕도는 없다. 일반적인 비만 치료 원칙에 따라 식사조절과 운동이 필요하다. 체중 감량은 현재 자신 몸무게의 5~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체중이 80kg이면 76~72 kg을 목표로 하여 조절한다. 이 정도의 체중 감소로도 내장지방은 20~40% 정도 감소하게 된다. 내장지방이 감소하게 되면 혈당과 혈압, 우리 몸의 모든 대사상태가 호전이 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과하여 너무 많은 체중을 줄이려는 계획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식사는 저칼로리 위주로 지방을 제한하여 섭취한다. 아울러 운동이 중요한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운동하여야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 자신의 복부비만을 쉽게 관찰하고 자각효과가 큰 방법이

허리띠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허리띠 안쪽 구멍 주위에 cm를 기록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다. 허리띠 구멍 하나가 건강 10년이라는 잠언도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환자는 자신의 에너지소비량을 알아보면 체중을 감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만센터에서는 기초대사량과 운동시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여 비만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식 섭취는 적은데도 에너지 소비가 극히 적은 환자는 운동처방사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처방을 할 수 있다.

체중은 많지 않는데 일부 부위에서만 유독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피부가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는 체형관리가 도움이 된다. 센터에서는 체중감량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지방분해기, 고주파자극기 장비를 갖춘 비만치료실을 운영한다. 내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도비만 환자는 배리아트릭 위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행하므로 수술 후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체중 감량 효과는 무척 좋다.

이번에 개설된 당뇨비만센터는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게 맞춤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높은 수준의 진료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병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개설에 도움을 주신 병원의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센터에서 함께 진료에 임할 당뇨비만센터의 모든 식구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남윤호** 특수간호팀 수술실  
2007년 2월 입사



**박상수** 특수간호팀 배과계 집중치료실B  
2001년 9월 입사



**윤희장** 간호부(대외협력홍보실 파견중)  
2003년 9월 입사

우락부락하고 거칠 것이다? 그건 오해~

## 인하대병원에는 6명의 훈남 간호사가 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하기도 한 남자간호사.

저희가 만나본 6명의 남자간호사는 모두 훈남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병원직원들에게 소개하고자 본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고민중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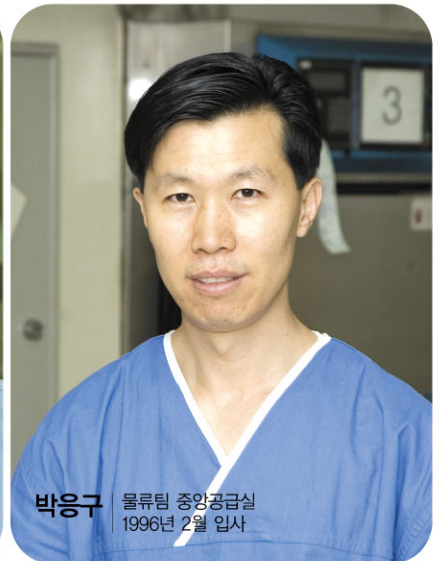
정리 · 이지현 | 대외협력홍보실



**차우정** 응급의료센터  
2008년 5월 입사



**이두남** 특수간호팀 수술실  
2007년 2월 입사



**박응구** 물류팀 중앙공급실  
1996년 2월 입사



## Interview -

###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차우정(이하 차) :** 여동생(본원 차윤경 간호사)의 권유로 간호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간호사라는 직업을 매력적인 전문직이라고 생각했었기에 큰 고민없이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남(이하 이) :** 특별한 계기라고 할 건 없는데. 예전에 꿈은 경찰이었는데, 눈이 나빠 포기를 하게 되었고, 수능 후 고민 중에 취업 생각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누님 두 분이 다 간호사인 친구가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저도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남윤호(이하 남) :** 고 3때 국문과나 사회학과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인지 부모님은 다른 전공을 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진로상담 중 선생님께서 제게 간호사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저 역시 남자간호사가 생소했던 때라 웃어넘겼지만 저의 성격이 간호사와 맞는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간호학을 선택했습니다.

**박상수(이하 박) :**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을 약 100여일 앞두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응급처치 후 휠체어를 밀어주던 남자 간호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형”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고 간호사, 간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 심리관련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있는 후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 남자간호사로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차 :** 같은 부서(EMC)에 남자가 없다는 것이 힘든 점입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시지만 동성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겠지요. 좋은 점은 남자가 저 하나뿐 이어서인지 선생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주십니다.

**이, 남, 윤 :** 특별히 좋은 점이라기 보다 성별이 달라서 그렇지 주위의 관심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받게 됩니다. 나쁜 점은 관심을 받는 건 좋지만 내 실수도 확대된다는 것,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완벽히 하려고 애쓰게 되네요

### 기억에 남는 환자 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차 :**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보호자 분들께서 악수를 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남자간호사를 실제로 보니

너무 반갑다고 하시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직 남자간호사가 별로 없는 시점에서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 태아의 태위가 안 좋아서 제왕절개를 하려고 한 환자였는데 수술상을 차리기도 전에 진통이 와서, 영검결에 자연 분만을 도왔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박 :** 우측 팔다리 움직임이 불편하신 신경과 70대 남자환자 분이 계셨어요. 중환자실은 특성상 보호자가 상주하지 못하고 담당간호사들이 전적으로 간호를 제공해 드리는데 제가 담당간호사가 되어 환자분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드리며 특히 소변 보실 때 소변통을 직접 대어드렸더니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며 고마워하시고 편안해 하셨습니다. 남자간호사인 것이 그 분에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차 :** 남자간호사이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환자나 보호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 또는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윤 :** 이라크에서 많은 의료진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화상환자가(쿠르드족 소년) 담당의의 헌신적인 노력과 담당 간호장교들의 보살핌으로 끝내 목숨을 건지고 6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았을 때가 가장 보람했습니다.

**남 :**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도 보람을 느끼지만 어떤 수술 이든지 제가 수술에 참여해서 스크럽 업무를 끝내고 나올 때 보람을 느껴요

### 일반적으로 남자간호사에게 갖는 오해와 편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 :** 일반적으로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와는 다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간호사들도 여자간호사와 같은 분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 :** 국립국어원은 ‘남자간호사’ 라는 표현을 ‘여류명사’, ‘여성총리’ 와 더불어 성차별적 표현유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남자간호사라고 불리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편견 없이 한 사람의 의료인으로 봐주길 바랄 뿐입니다.



## - Interview

**이 :** 직업에 대한 편견! 간호사는 여자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여자만의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섬세함은 여성에게 뒤지지만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자간호사의 힘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기계 장비와 무거운 의료기계들 사이 속에서도 남자간호사가 유리한 것 같고요.

**남 :** 가끔 이송업무나 여러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 남자간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남자간호사는 이송업무나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박 :** “남자간호사들은 우락부락하고 거칠것이다?” “남자 간호사는 힘이 셀 것이다?” “남자 간호사는 꼼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지만 남자, 여자가 아닌 간호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여쭙습니다. 여자환자 영당이 주사 놓은 적이 있나요? (웃음)

**차 :**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 간호사라는 이유로 영당이 주사를 거부한 여자환자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아한 일이기도 하지만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 네. 여자간호사분들도 남자환자한테 주사 놓는 걸요. 특별하게 있나요? 환자와 간호사는 돌봄의 대상과 돌봄을 하는 주체 일 뿐입니다.

### 여자가 많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차 :** 네 바뀐 것 같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고 덜렁거렸던 성격에서 꼼꼼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계획적으로 변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간호사가 되면서 많이 활발해진 않지만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진 거 같네요.

**남 :** 물론 여자가 많은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바뀌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남자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어느 정도의 여성성(?)은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 간호사로서 나의 사명 또는 좌우명을 말씀해 주세요

**차 :**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간호

사가 되겠습니다.

**이 :** 대한민국에 아직 1%로 밖에 되지 않는 남자간호사로서 후배 남자간호사들이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남 :** 저에게 간호사로서 주어진 사명이라면 병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줄 수 있는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 나의 간호를 받는 모든 분들이 현재의 고통에서 위로 받고 보다 더 편안해 지기를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인하대병원에서의 포부는 무엇인가요?

**차 :** 응급실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응급전문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 환자의 입장에서 정성껏 간호해 환자가 찾는 청일점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남 :** 언젠가는 모두에게 유능한 간호사 하면 남윤호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박 :** 나를 진정한 간호사로 키워주고 멋진 간호사를 꿈꾸게 한 인하대병원에서 보다 더 준비하고 노력하여 중환자전문간호사로서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차 :** 훗날 원내 남자간호사회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인원(축구경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 남자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남 :** 아직은 특수파트에만 남자간호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병동이나 환자분들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도 남자간호사가 많이 활동할 수 있었음 좋겠고 남자간호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많은 분들이 남자간호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진 맨뒷줄 가운데 필자 조래정



글아머무는 풍경

나눔의 기쁨 안고 돌아온 몽골 의료봉사

##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꿈의 나라로 생각

조래정 약사 | 약제팀

### Mongolian

일 년 중 7개월이 겨울이어서 발그레하게 언 불을 지닌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몽골. 땅은 넓지만 혹독한 추위로 사람이 살기엔 척박한(인구 250만명, 인천시 인구와 비슷함) 그 곳으로 인하대병원 직원 16명과 인하대 의대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 16명은 7박 9일간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떠났다.

외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4개과가 참여했고, 봉사활동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남동쪽 43Km지점의 투브지방 준모드시 아이막 도립병원에서 실시하였다. 방문 첫날 준모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인하대병원 의료원장, 준모드 시장, 시의회 의장, 아이막 도립병원장, 몽골 보건국 부국장, 제1병원 신경과장 그리고 의료봉사 단장님을 비롯한 봉사단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행사 및 우호협력에 관한 합의서 조인식을 거행하였다.

환영 행사 후 아이막 도립병원으로 이동하여 첫날 진료를 실시하였다. 미리 홍보가 되어서인지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 봉사 기간 동안 총 940여 명의 환자를 진료 투약하였다. 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증 환자는 별로 없었고, 주로 알레르기에 의한 피부질환, 안과질환 환자가 많았다. 다행히 알레르기 약품은 충분하여 문제가 없었다.

각 진료과와 투약구에 통역인원이 배치되었다. 몽골국립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하는 몽골인이 많다고 한다. 마지막 날은 특별 이벤트로 '밀가루 나누어 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20Kg 밀가루 한 포는 저소득 4인 가족 한 달분의 식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밀가루로 만든 만두가 그들의 주식이었다.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시키는 몽골가정을 직접 둘러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몽골의 현재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몽골인들은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꿈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음식과 낯선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봉사단원이 많았다. 하지만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소박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몽골인들을 보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 스리랑카로 떠나는 아름다운 동행 한데 뭉쳐 나눔을 실천하는 효율적인 의료봉사

김종민 주임 | 대외협력홍보실

어린이재단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스리랑카로 떠나는 아름다운 동행 후원자방 문단' 과 함께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다. 2주간 매일 4시간 잠을 자고, 20시간 씩 회사에 나가 이번 의료봉사를 준비 했다. 스리랑카 의료봉사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이 의료진의 전부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었다.

17시간의 비행 끝에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했다. 쉽지 않은 통관을 마치고 공항을 나오는 순간 열대지방의 덥고, 습한 공기가 여기가 스리랑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가미니' 라는 가이드와 스리랑카 CCF(Christian Children Fund)담당자 '디나샤'가 우리를 맞이했다. 개인 짐은 버스에 실고, 의약품과 진료재료는 밴에 실어 호텔로 행했다. 공항에는 군인들과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싱할리인과 타밀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국은 모든 권리를 싱할리인에게 이양했고, 싱할리정부가 '싱할리 제일주의'를 추진하면서 타밀인 탄압정책을 펼쳐 시작된 내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아침 8시에 출발한 일행은 버스로 8시간 만에 첫 번째 의료캠프인 로기(LOGIE ESTATE)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기 전 누와라엘리아로 가는 길에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사롱을 480루피 주고 하나 사서 입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외국인이 남자는 '사롱', 여자는 '사리'라는 전통의상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식당에는 어린이재단의 '스리랑카로 떠나는 아름다운 동행 후원자방문단'이 먼저 도착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내일 있을 KBS '체험 삶의 현장' 촬영 계획 회의를 마치고, 장시간 버스 여행으로 온몸은 녹초가 되어 침대로 직행했다. 내일은 6시 기상, 7시 1차 의료캠프 LOGIE ESTATE로 출발이다.

아침을 먹고 바로 1차 의료캠프로 출발 했다. 9시부터 진료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도착한 8시에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 준비하고, 현지 의사가 1차 진료를 하면서 순번표를 나누어 주면서 진료가 시작되었다. 어린이재단 후원자 중 수원시약사회 김영후 약사님이 우리 의료진에 합류해 도와주셨고, 진료 중 KBS '체험 삶의 현장' 촬영이 시작되었다. 40대 이상 안과질환으로 찾아온 사람들 중 90%가 백내장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 위생이나,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차 의료캠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진료를 마감했다. 진료마감까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기다린 지역 주민이 100여명이 넘었지만 주민들은 우리 의료진의 성실한 진료에 감사를 표하며, 의료캠프 철수를 도왔다.

숙소로 돌아와 어린이재단 '스리랑카로 떠나는 아름다운 동행 후원자방문단'과 이번 행사와 의료봉사의 의미를 함께 찾았고, 방송인 '이홍렬' 홍보대사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하며,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 Sri Lanka



2차 의료캠프 역시 9시에 시작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었지만 8시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100여명이 줄을 서서 접수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진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약품 부족분은 현지 CCF에서 긴급 조달 해주었다. 계획했던 대로 4시30분 접수를 마감하고, 5시 진료마감 했다. 현지 의사와 자원봉사자, 현지 가이드, 모두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료를 끝냈다. 이틀에 걸친 의료봉사 강행군에 모두 지쳐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진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애기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내일 있을 마지막 의료캠프 계획을 세우며 마무리 했다.



의료봉사 참가자와 현지 의사, 자원봉사자, 가이드 이번 의료캠프에서 수고하신 모든 사람이 모여 성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료봉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CCF 수혜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들을 위해 기념품을 만들어 주었고, 주민들이 수확한 이고장 흥차를 받았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의료봉사 전담업무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봉사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번 스리랑카 의료봉사는 어린이재단의 후원과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한데 뭉쳐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가 되었다.

약물학적 효능 위해 식전 복용

##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 심혈관계 위험!

**Q: 갑상선 호르몬제를 아침 식전에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갑상선 호르몬제(신티로이드)는 체내에서 만들어져 분비되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성분입니다. 갑상선은 생체활성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낮 동안에 작용이 강하므로 생체 리듬을 고려하여 낮 동안 약물학적 효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보통 아침에 복용합니다. 또한 음식물과 함께 복용 시 약물의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전 1시간 정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가루, 견과류,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은 양배추, 무청,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식품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Q: 갑상선 수술 후 어떤 경우에 칼슘제를 복용해야 하나요?**

**A:** 갑상선 수술 시 부갑상선이 수술 중 손상을 입거나 함께 제거될 경우 부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과 입 주위에 감각장애가 오거나 손이 비틀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칼슘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타민D 제제를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슘제가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 적어도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갑상선 호르몬제를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A:**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대사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신진대사가 빨라져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클리닉에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비만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기도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체내에 과량이 될 경우 골다공증, 심장박동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교감신경흥분제와 같은 다른 약물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혈관계 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갑상선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모르고 응급처치하면 순식간에 위험 초래

## 가을철 발생 사고주의! - 벌쏘임, 뱀물림

추석이 있는 가을에는 벌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기 마련이다. 가을철 야외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의 응급상황에 대한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별 응급처치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훈 전임의 | 응급의학과



###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대부분은 국소의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실되나, 민감한 사람은 소위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에 의하여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알레르기 반응은 벌침의 독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심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숨길의 부종에 의한 기도폐쇄, 전신적인 쇼크로 사망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민반응을 의심할 수 있다.

1. 전에 벌에 쏘인 후 과민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는 환자
2. 전에 벌에 쏘인 적이 없는 환자(처음으로 벌에 쏘인 환자)
3. 쏘인 부위의 변화
  - 주변으로 부종이 확대 되거나, 물리지 않은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
4. 전신적인 변화
  - 식은땀, 복통과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

### 응급처치 순서

1.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339나 119에 연락한다.
2.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한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경우,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낼 수 있다.
3.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준다.
4.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아무 것도 섭취시키지 않는다.

### 뱀에 물렸을 경우

가을철이 되면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하여 뱀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불독사의 세 종류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들어 관상용 독사 등 수입된 뱀의 숫자가 늘어 주의를 요한다.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으나, 일단 물린 경우에는 순식간에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 독을 가진 뱀은 다른 치아보다 훨씬 길고 날카로운 두 개의 독니를 가지고 있

어, 물린 경우 흔히 한 개 또는 두 개의 깊은 이빨자국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 응급처치 순서

1. 우선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2. 119 또는 1339의 도움을 청한다.
3.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4.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5.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다음의 처치를 실시한다.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꼭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낼 수 있다.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된다.
6.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 하지 않아야 할 처치

1.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는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2.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는다.
3.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4.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응급처치법을 모를 때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상담하거나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032-890-2301~3 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3분법 - 부동산, 주식, 채권

## Tax Planning - 제대로 알면 큰 재테크 수단



우리가 그 동안 흔히 들어왔고 알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자산배분의 원칙이다.

모든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과 '수익률'이다. 여기서 '수익률'이라 함은 '세후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에서는 특히 세후 수익률에 의한 투자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요소 중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그 중 많은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코자 한다.

2007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먼저 처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액계산상의 불이익이

있다.

무조건 50%의 무거운 단일세율을 적용 (일반세율은 9~36%),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적용 배제(3년 이상 보유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소 10%~최대 80%를 공제하여 줌)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5년 보유 후 7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자의 경우 약 3백만 원 정도이나,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면 약 9천 8백만 원이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되므로 9천5백만 원의 세후 수익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세후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약 39%의 누적수익률(연평균 7.9%)을, 중과세 적용 받는 경우 약 20.4%의 누적수익률(연평균 4.1%)이라는 결과를 낳게 됨을 알 수 있다.

## 1세대 2주택 중과세 피하기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방법적 측면에 대하여만 간단히 소개코자 한다.

1. 분리세대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세대를 분리한다. 분리세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결혼한 경우

나. 30세 이상인 경우

다. 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2. 동일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세율은 50%의 단율세율이지만, 증여세는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부담이 낮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예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세액은 약 7,560만 원이며(증여공제 3천만 원, 증여세 및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이전비용은 본인 부담가능한 것으로 추정), 동일 조건에서의 양도세액 9,800만 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도 자녀에게 증여까지 완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으로  
본고의 모든 내용을 읽는다 해도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한 후  
부동산투자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실행하라'.

##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처분 결정

이번에 소개된 내용은 부동산투자자와 관련한 세무상의 유의사항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1.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절세를 할 수 있다.
2. 납부세액에 따른 세후투자수익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반드시 실행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라.

오랜 고객상담과정을 통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시사점 중 마지막에 있는 '사전에 행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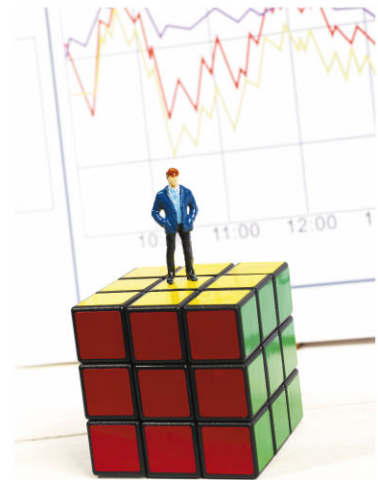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므로 본고의 모든 내용을 읽는다 해도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한 후 부동산투자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실행하라'.

한가지 덧붙인다면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자산관리에 있어 Private Banker와의 상담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문의전화 : 인하대병원 하나은행 차장 한충현(032-889-1111)

▶자료제공 : 하나은행 서현역 골드클럽 PB / 센터장 김정권



오랫동안 지금의 마음처럼 초심을 지키며

# 100% 진료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편한 이웃으로~

## 코코이비인후과\_ 최상학 원장

최상학 원장이 코코이비인후과를 개원한 것은 작년 5월의 일이다. 친절과 사랑으로 성심껏 진료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최 원장은 아직도 처음 같은 설렘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는 진료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환자를 천천히 보는 습관이 있는 최 원장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트러블 없는 진료 서비스와 코코이비인후과를 찾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다. 코코이비인후과는 소아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축농증, 난청과 이명 클리닉 등의 질환 진료와 귀, 코, 목 내시경 검사, 컴퓨터 청력, 보청기, 알레르기, 축농증 검사 등과 함께 당일 입, 퇴원 하는 수술 등의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1년을 넘긴 개원생활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를 꼽으라면 다른 곳에서 하고 오셨던 축농증을 재수술 받으시고 깨끗한 상태로 완치되었을 때라고 한다. 이런 경우 오히려 뜸하게 오시면 잘되었다는 생각에 안심을 한다고 한다.

또 최 원장은 노란 콧물이 심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 약을 복용해도 목이 계속 아픈 경우, 편도선에 농양이 차거나 할 때는 합병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 진료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건강한 코는 건조하지 않게 적당한 습도 유지가 최우선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코 세척까지는 필요치 않고 너무 코를 세게 푸는 것 역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하대학교 출신인 최 원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하대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참 편하다. 또 인하대병원이 인천 지역에서 인식이 좋아 자신도 자부심과 신뢰를 갖고 있단다. 그래서 또 최고의 자리에서 뒤쳐짐이 없이 계속 발전하는 대학병원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코코이비인후과라고 하면 간혹 '코'만 진료 하나는 질문을 받는다는 최 원장은 이번 기회에 그 오해(?)를 깨고 싶단다. 분명 모든 이비인후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못 박는다.

최 원장은 자신을 평범한 소시민으로 낮춘다. 이제 개원 1년을 넘겼지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지금의 마음처럼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 환자들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편한 옆집 이웃 같은 존재이고 싶다.

● 인천시 남구 학익동 ☎ 032-864-5075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 여성에 관한한 뭐든 의논할 수 있는 ‘나의 주치의’ 의사라는 이름이 있는 한 여성의 건강, 책임집니다!

## 삼성산부인과\_ 함경렬 원장



함경렬 원장이 인천지역에서 산부인과 개원의로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의 일이다. 여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털 케어시스템을 지향하며 지금의 삼성산부인과 자리로 오른 것은 2005년이다. 근 10년을 인천지역에서 함께 하다 보니 지금은 인천사람이 다되었고 떠나는 것이 어색할 정도다.

여성의 건강에 관한한 전문병원을 추구하는 삼성산부인과는 5백여 평 규모에 100여명의 직원은 고객이 우선이라는 서비스 마인드로 산부인과, 유방클리닉, 소아과, 피부비만, 여성노화와 갱년기 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은 10월에 신축 이전할 예정이고 유방클리닉의 진료 규모도 넓힐 계획이다.

이렇게 병원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 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원장은 여러 번 강조한다. 직원에게 잘 하라고 주문하기 이전에 직원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직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어야 신나게 일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절한 의료 서비스가 실천됩니다. 새로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직원들의 생각을 묻죠.”

격 없이 지내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함 원장의 직원 사랑은 끊임이 없다. 함 원장은 진료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준다. 물론 자신도 완전한 오픈 마인드로 말이다. 그래서 심지어 진찰대 침대에 슬며시 누워본 적도 있다고 고백한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병원이 현실이 그렇지만 함 원장은 인하대병원으로 응급 신생아를 보낼 때 베드가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제일 마음이 짊어진다. 그러나 인하대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잘 잡고 있어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고맙다.

초경의 시작, 결혼과 출산, 또 중년의 갱년기 등에서 오는 여성의 삶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성산부인과는 이러한 여성을 이해하여 양질의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그래서 여성의 삶이 윤택해지는데 일조를 하는 동반자이고 싶다.

함 원장은 인천지역 여성을 위해 자신이 ‘의사’라는 이름을 놓는 그날까지 건강을 챙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란다. 또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의사, 언제나 찾아가 여성으로써 뭐든 의논할 수 있는 ‘나의 주치의’로 곁에 있고 싶다.

● 인천시 남구 주안동 ☎ 032-451-0000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 미주 동포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인하대병원 많이 칭찬하고 홍보하며 추천합니다~



a grateful letter

이두익 의원장님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승주이고 지난 6월에 제 친구부부와 저희 부부 넷이서 시카고에서 여행을 하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인하대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니다.

복잡한 과정과 시간과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미국과 달리 신속, 친절 한 서비스에너무 만족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특히 건강검진 플러스센터에 거주연 간호사의(지현숙, 이지나 간호사 포함)친절하고 섬세함은 거의 감동 수준이었고요. 출국전 부터 많은 정보와 조언을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치밀함으로 처음 방문 건강진단 준비과정도 아무런 시행착오없이 무사히받을 수 있었습니니다.

경험 많은 의료진과 친절 한 간호사가 있는 인하대병원은 의료보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저희 미주 동포들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될 것 을 믿습니니다. 그리고 저희 주위사람들에게 그런 인하대 병원을 많이 칭찬하고 홍보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니다.

저희들 넷, 생전 처음 받아본 건강진단, 의료진 과 간호사들에게너무 고마워서 의원장님께 감사한 마음 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카고에서 김범래, 김승주, 원우혁, 원영숙 올림





##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 "35년간 박혀 있던 파편 꺼냈어요"

"병실에서 편안하게 잠드신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총상 파편이 몸에 박힌 채 35년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10일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병동. 지난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판티투장(24) 씨는 수술 뒤 회복 중인 아버지 판반덕(63) 씨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판반덕 씨는 베트남 전쟁 때 총상을 입은 뒤 파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왼쪽 손목 근육에 각각 5~10mm 크기의



금속 덩어리가 박힌 채 35년을 살았다고 한다. 수술을 집도한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주 교수는 "수술 경과가 좋다. 근육을 움직여도 통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씨는 헬스조선과 인하대병원, 대한항공이 펼치는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의 첫 열매이다.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고국 가족들의 사연을 응모 받아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해주는 행사이다. 판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베트남의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수술 성공률이 낮고 비용도 비싸 포기하고 살았는데, 인하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편하게 잘 수 있어 참 좋다"고 말했다.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은 지난 6월 시작돼 이번에 첫 결실을 맺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인하대병원 김정희 대외협력홍보실장은 "다문화 가정에 사랑을 베푼다는 취지에 공감한 대사관과 영사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적극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9월17일자 | 글·사진 심재훈 기자]

## 인하대학교 건강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입과식 ●

인하대학교와 인하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 입과식이 9월 17일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1기 과정에는 인천경찰청 유태열 청장, 인천 중구청 박승숙 청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황규철 회장 등 40명의 CEO들이 입과했다.

홍승용 인하대 총장을 비롯해 이두익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승림 인하대병원장, 김석규 경영부원장 등 관계자와 여러 교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입과를 축하했다.

입과생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3시간씩 암을 비롯한 성인병 및 정신질환 강의와 문화교양강좌 등을 듣게 되며 해외문화 탐방 등으로 레저와 건강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친교를 쌓게 된다.

또한 인하대병원 교수들과 일대일 주치의의를 맺고 평생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 병원 이용 시에는 전담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무료종합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스리랑카에 사랑의 인술 꽃 피워, 인하대병원 의료봉사단 970명 진료 ●●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남아시아 뱅골만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에 인하대병원 진료봉사단의 사랑의 인술이 꽃을 피웠다.

인하대의대 손병관학장(소아청소년과)을 단장으로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 등 의사 4명, 간호사 2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진료봉사 팀은 1천 명에 가까운 환자에게 진료와 투약 등 의술을 베풀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스리랑카 의료봉사 후원 요청을 받아 의무위원회에서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진료봉사에 참여키로 하고 20곳의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일부를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가장 강한 사나이’ 권을 씨 인하대병원 홍보대사 위촉 ●

인하대병원은 7월 30일 미국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로 뽑힌 권을(33세) 씨를 인하대병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미국 CBS의 인기 프로그램인 ‘서바이버’에서 5만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해 ‘가장 강한 사나이’로 불리어진 점과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뛰어난 리더십이 인하대병원의 21세기 동북아 메디포트(medi-port)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하대병원 -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민. 군 진료협약 체결 ●●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8월11일 인방사에서 민.군 진료협약 체결식을 갖고, 공공의료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및 장병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 인하대병원 2008년 을지훈련 실시 ●●●●

8월 20일, 2008년도 을지훈련(대량재난 대비훈련)을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재난대비훈련은 병원의 JCI 인증에 필수적인 훈련으로써 이번 을지훈련은 병원에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주)LG CNS 홈헬스케어 서비스 Pilot 운영 MOU 체결 ●●●●●

8월 20일 본원과 (주)LG CNS 홈헬스케어 서비스 Pilot 운영 MOU를 체결하였다. 1년간 (주)LG CNS에서는 홈헬스케어 장비 무상제공 및 헬스케어 센터 설치운영하고, 본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홈헬스케어 측정결과 참조 후 운영평가서 및 의료진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 인천 최초로 ISO 9001 인증 - 인하대병원, 의료분야 품질경영 선도 ●●●●●

인하대병원이 인천 최초로 종합전문요양기관(건강검진부문)으로서 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을 획득했다.

본원은 국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미국 ICR 국제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을 받고, 8월 29일 인증기관 대표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SO 9001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2008년 4월부터 ISO 9001 인증 추진팀을 구성하고 7월까지 4개월 동안 의료서비스경영 매뉴얼, 지침서, 업무 프로세스 등의 문서 작업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재평가 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심사를 거쳐 문제점 파악 및 개선으로 심사에 대비했다.

지난 8월 5일 인증기관인 미국ICR국제인증원은 인하대병원이 4개월여 동안 구축한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경영시스템의 실행 여부를 심사했다.



## 미군 121 병원, 지정병원 협약 논의 차 방문 ●

9월9일 미군 121병원은 지정병원 협약체결검토 및 병원시설을 견학하기 위하여 인하대병원을 방문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미군 121병원장 도날드 스미스 씨와 미군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이두익 의료원장, 박승림 병원장, 손병관 학장이 참석하였다.



## 인천핸드볼협회와 지정병원 협약체결 및 홍보위원 위촉 ●●

9월 11일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인천핸드볼협회(협회장 김옥기)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핸드볼협회의 임직원 및 선수의 건강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를 전담 주치의로 임명했다.

이날 임영철 국가대표팀 감독 겸 박산건실 핸드볼팀 감독과 국가대표 강일구, 오영란 부부를 인하대병원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과 병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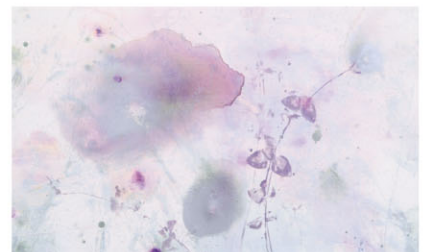
협약 체결 후 병원 1층 로비에서 올림픽 핸드볼 국가대표 사인회 개최와 사인볼을 증정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 병원 2층 갤러리 전시 안내 ●●●

2008년 8월 19일(토)부터 9월 17일(수)까지 병원 2층 갤러리에서 서양화가 이중경 작가의 서양화 비구상 미술품 약 40점을 전시하였다. 화사한 색채가 2층을 오가는 환자 및 보호자들과 직원들에게 마음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준 전시회였다.

오는 9월 19일(금)부터 10월 18일(토)까지는 환우돕기 기획전시회, 현대미술 5인 초대전이 열린다.



## 인하대병원 마라톤 동호회,

### 제7회 행강화울트라마라톤에 참가, 완주 및 입상 ●●●●

아름다운 강화 해변을 보며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제7회 행강화울트라마라톤(65km코스)에 인하대병원 마라톤 동호회원 4인(이승호, 채희영, 조래정, 김태규)이 참가하여 8월 30일 20시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06시까지 끝나는 제한시간 10시간 내에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모두 완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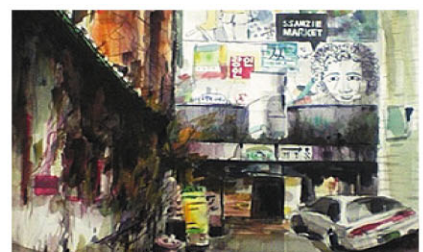
특히 이승호 회원은 남자부 5위에 입상하여 트로피와 부상으로 차기 대회 무료참가권을 받았다.



## 원무보험팀 강순자 과장, 근로자문화예술제 회화부문 은상수상 ●●●●●

본원 원무보험팀 강순자 과장이 전국근로자 대상으로 개최된 제 29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주최:근로복지공단) 회화부문에서 '인사동 쌈지길' 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9월11일부터 9월18일까지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인사동정

승진임용

정형외과	교수	조규정
정신과	교수	이정섭
산부인과	부교수	황성욱
비뇨기과	부교수	류지간

수습

특수간호팀	김혜령, 최현미
병동간호팀	김수진, 이미정, 손혜영, 김지혜, 오경미, 조소미, 김진선

신규임용

소화기내과	조교수	박정엽
순화기내과	조교수	우성일
방사선종양학과	조교수	김헌정
외과	촉탁전문의	김장용
가정의학과	촉탁전문의	이연지

전근

당뇨비만센터	민기영, 유진희
간호부	강혜원
병동간호팀	김나리, 윤상희
특수간호팀	차윤경

이달의 친절부서 및 직원

8월 친절부서	병동간호팀	차윤경
9월 친절직원	교육수련부	최효성

신규 및 수습채용

신규	
약제팀	정은희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홈페이지 [www.inha.com](http://www.inha.com)>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1) 유방암 환우회 가을 야유회

- \* 일 시: 2008년 9월 26일(금)
- \* 장 소: 산정호수, 허브아일랜드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여성암센터로 문의(☎ 890-2561)

2) 핑크마라톤 대회

- \* 일 시: 2008년 10월12일(일) / 09:00 집결(10:00 출발)
- \* 장 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공원
- 신청기간: 2008년 9월 29일까지 각 구 팀장님께 신청해주세요
- 참가자격: 환우 및 가족모두
- (<http://www.pinkmarathon.com/>)

3) 핑크리본 희망애락 콘서트

- \* 일 시: 2008년 9월 28일 (일) 오후 1시~4시
- \* 장 소: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여성암센터로 문의 및 초대장을 받아주세요



#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 2. 봉사활동시간

- 오전 : 9시-12시 / 오후 : 1시-4시

## 3. 봉사활동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4. 신청방법

- ① 방문 및 전화접수 : 병원 지하2층  
자원봉사자실 담당 신소영 032-890-2873
- ② 활동부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5.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사진 2매(명찰, 봉사자증 제작용)

## 6. 봉사자에 대한 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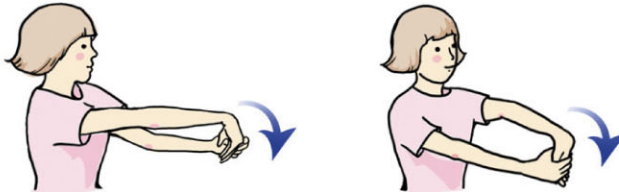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야유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 상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II

## 테니스엘보우

팔꿈치 외측면에 있는 외상과 부위의 통증이 특징이며, 팔꿈치의 직접적인 손상 또는 상지의 반복적인 무리한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테니스 선수에게 잘 발생하므로 테니스엘보우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급성기 통증시에는 휴식과 팔 근육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통증이 줄어들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아래 그림과 같은 스트레칭을 작업 전후에 5분 이상 해 주면 상기 질환의 발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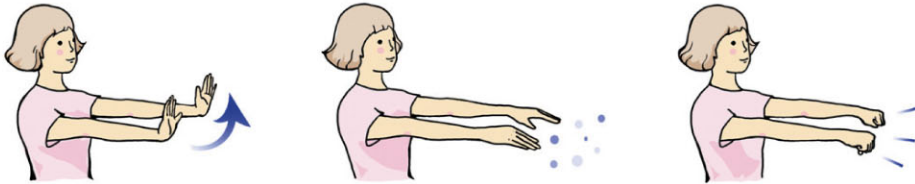


- 팔꿈치를 펴고 다른 손으로 손목을 지그시 구부리며 30초간 유지합니다. 동작을 반복하여 5분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 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은 정중신경(손의 근육과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수근관(손목뼈에 의해 형성되는 좁은 공간)을 지나면서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으로, 휴식 없이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이 찢릿찌릿하고 저린 증상이 혼합니다.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과 아래의 체조를 작업 전후에 5분 정도 시행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① 물구나무자세와 같은 손자세에서 양 손목과 손가락을 이완시킨다
- ② 양쪽 손목을 반듯이 하여 손가락을 이완시킨다
- ③ 양손을 단단한 주먹을 만든다



- ④ 주먹을 전상태로 양쪽 팔목 아래로 구부려서 5초까지 셀 동안 유지한다
- ⑤ 양팔목과 이완된 손가락을 똑바로 해서 5초를 센다
- ⑥ 이러한 운동을 10번 계속한 후 양쪽팔을 편하게 옆으로 한 후 수초 동안 흔든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호에 안내해드린 데로, 이번 호에는 환자가 해당 과에 진료 접수 시 필요한 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Go!!~



**International patient:** Is this the Ophthalmology outpatient department?

여기가 안과 외래임니까?

**Clerk:** Yes, may I help you?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nternational patient:** I need to consult with an Ophthalmology outpatient department. What should I do?

저 안과 진료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Clerk:** Have you registered?

접수하셨습니까?

**International patient:** Yes, I have.

네, 했습니다.

**Clerk:** Can I see your registration card?

접수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Clerk:** Have a seat here for a while, please. I'll call your name when we are ready.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차례가 되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 다음 호에는 접수 후 기초 문진에 대한 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o sweat, no sweet. 오늘 대화도 역시 하루에 세 번씩 읽고 암기해서 외국인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 활용해보세요.

Global 인하대병원에는 Global 인하인이 있습니다.



## ★ 원고도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 E-mail : inhapr@inha.com

■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 편집위원

김명석

이재현, 김필림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부협력

##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_\_\_\_\_

□□□-□□□



받 는 사 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퀴즈 퀴즈 제45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1 스트레스와 편두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무리한 운동, 불규칙한 식사, 수면부족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 ② 편두통은 특히 여성에서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오래된 편두통환자들은 이차적인 근육긴장으로 인한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다.
  - ④ 여성의 편두통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 2 음식궁합이 서로 잘 어울리는 음식이 아닌 것은?**
- ① 김과 기름 (김구이)
  - ② 두부와 미역 (두부미역국)
  - ③ 장어와 복숭아
  - ④ 초콜릿과 아몬드

- 3 인하대병원 ○○○○○○는 병원 2층에 고품격의 초현대식 시설과 첨단장비로 편안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스탑(One stop)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었다. ○○○○○○는 100여 평의 규모에 당뇨합병증평가실, 내분비특수검사실, 당뇨교육실, 영양상담실, 비만상담실, 비만치료실, 채혈실, 신체계측실 및 4개의 진료실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인구의 7~8%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해 소모되는 의료비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투여되는 약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비만은 우리나라 인구의 25%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되며, 동반되는 질환이 많아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이런 추세에 맞춰 이번 ○○○○○○를 개설하게 됐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Quiz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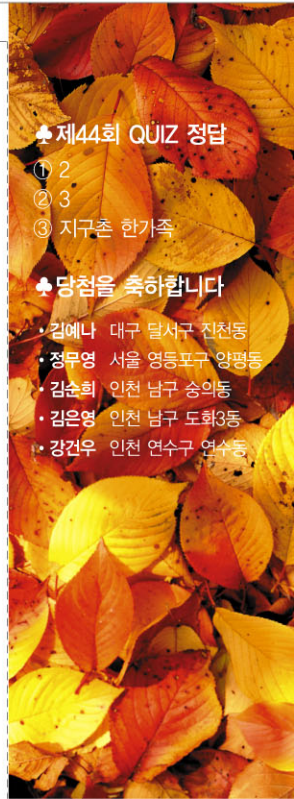
- 1
- 2
- 3

### ♣ 제44회 QUIZ 정답

- ① 2
- ② 3
- ③ 지구촌 한가족

###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예나 대구 달서구 진천동
- 정무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 김순희 인천 남구 송의동
- 김은영 인천 남구 도화3동
- 강건우 인천 연수구 연수동





##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8년 8월 3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24명	450,453,321원	308,345,996원	

◎ **기부자 현황** | 2008년 8월 1일 ~ 9월 3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고
'08. 9. 3	장 미	₩100,000원	진단검사의학과(완납)



###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li> <li>- 참가비 7만원</li> </ul>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li> <li>•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li> <li>•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li> </ul>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li> <li>•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li> <li>-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li> </ul>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3시~4시 30분 (10/13, 11/10)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 무료공개 강좌 |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10월 28일(화) 오후 3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외과	조영업
11월 25일(화) 오후 3시	여성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비뇨기과	박원희
12월 30일(화) 오후 3시	중년이후 여성의 건강관리	산부인과	이병익

● 강의일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15:00 ~ 16:00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032)890-2114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초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순환기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월, 수	월, 수	천자확인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낭질환	화, 목	월			이문희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권 준	*	관동맥질환, 심방판막질환, 심근증	월, 수	목			이현규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수, 금				
	김대혁		해외연수(2008. 8 ~ )					김진수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금	목				
	우성일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목, 금	화				
	최응길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목												
김수현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월, 수, 목, 금											
일 반			수, 금	화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수, 목		내시경센터 (☎2540~1)	류마티스내과 (☎2219)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이진수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이도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타2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권계숙		해외연수(2007. 10 ~ )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수, 목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목, 금	화, 목			김영욱		관절염, 척추염, 통풍	금	월, 화, 수				
	정 석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월, 화	목			일 반				금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화, 수	수, 금			김철우		해외연수(2008. 9 ~ )	월, 목	월				
	박정주	*	치료내시경, 소화관질환	수	화, 금											
	박현주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수											
	최윤아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김철현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손동욱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김하구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최새로운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월, 금		내과계일반 외 과 (☎2250)	일 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금	수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목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금	화, 목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목	월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홍기천	*	혈관외과, 이식외과	화	목				
당뇨내분비센터 (☎2216)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화, 목, 금	월, 목	내비만센터 *임상시험센터 *IMT검사	홍부외과 (☎228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 목	화, 목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월, 화, 수, 목, 금				백안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화, 목	화				
	홍성빈		해외연수(2008. 2 ~ )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월, 목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화, 목, 금	수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수	수, 금				
	오윤주	*	당뇨병, 내분비, 갑상선	월	화, 목, 금			박종운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비만내분비내과 센터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신경외과 (☎2370)	박종운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인면경,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월, 수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	소아비만		수		정형외과 (☎2380)	박형천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목	목	뇌종양, 인면경통, 소아 신경통, 근육통, 장애			
	이지은	*	소아비만, 소아당뇨		목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금	화, 금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화, 목		혈액투석진료	정형외과 (☎2380)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수, 금	수요진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금	월			최준영	*	두부외상, 척추	화, 금	화, 금				
	송준호		해외연수(2008. 2 ~ )					박성림	*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 골절, 척추 및 지지	목					
이승희			화, 목, 금				오인석	*	슬관절염, 인공관절슬관절, 슬관절, 척추 외 질환, 스포츠외과	월, 수	수					
신장이식클리닉 센터 (☎ 2533)	김문재	*	신장이식	화		클리닉과 병행	김명구	*	인공관절슬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슬관절, 관절염	화, 목	화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화, 수, 목, 금				강준손	*	인공관절슬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김려섭	*	슬관절, 건관절, 스포츠외과, 관절염	목		화, 목			
송준호		해외연수(2008. 2 ~ )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화, 금	수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이동주	*	수부, 상지, 종양, 관절염	화, 금	월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금				강석봉	*	척추	금		금			
	송준호		해외연수(2008. 2 ~ )					이 문	*	슬관절, 건관절	월		월			
							정새롬	*	인공관절슬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목	목					
							일 반		화, 목, 금	화, 목, 금						

토요일 오전진료는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특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특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목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아지리움중클리닉		
	황진희		손외과 및 미세수술 화상, 미용	월, 수, 금	수			김영모	*	두경부중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수), 금	화, (수)	다행병원(클리닉)3층 다행병원(클리닉)4층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짐질환, 여드름, 탈모, 피부외과, 레이저, 비화상	월, 화, 목	수 (목)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중증,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증특별클리닉		
	신정현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색소질환, 레이저, 두드러기, 피부미용	수, 금	월, 화, (금)	△피부레이저클리닉 #피부미용외과		김철승	*	난치성 항불안정, 외상성장애, 불쾌증, 조기사건	월, 목	수, 목	조기정신병클리닉		
	이현숙		간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이정성	*	소아정신과(안락) 학습, 주의력, 언어, 인지장애	월	화, 목, 금	학습장애특별진료센터		
	이승규		모발, 모발이식, 피부미용외과	금	화, (수), 금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노인치매클리닉		
	일 반			화, 목	월, (월), 목			선우영경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금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신경과 (☎3860) 만15세이상 진료가능	하중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월, 수	수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금	화, 금	뇌졸중클리닉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장애클리닉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윤창호		해위연수(2008. 8 ~ )	월, 화, 수, 금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송은철		말초출관	월, 목	월, 금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중양	화, 목, (금), (수)	(수)	☐여성암센터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중증, 소뇌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수원클리닉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금	월, 목			김창환	*	근골격계중증요통, 요삼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목	*연아장애		
	임문환	*	주산기외과, 태아성장초음파, 유전학, 알코올산부인과학	화, 목	월, 화			김영옥	*	척추수술,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화	*언어장애		
	송은섭	*	부인과중양	월, (월), (수)	금			일 반	일 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금	화			여성암센터 ☎2560	산부인과 외과 영상의학과	이우영	*	부인과중양	금	수	
박지현	*	주산기외과, 산과초음파	월, 수	수, 목		송은섭	*			부인과중양	화, 수	수, 목, 금	간센터파견		
소아청소년과 (☎2260)	홍영진	*	심장, 감염	목, 금	월	만5세까지 소아과진료	국재클리닉(☎2455)			일 반	신체검사(우측,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수), 목	☐비만센터	동증치료실 (☎3921)			이두익	*	통증치료	화	화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월, 목	화, 수	소아내시경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수	월, 목		고희창		통증치료	목	화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수	화, 금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안과 (☎2400)	권영세	*	신경, 간질, 유전성대사질환	화, 금	월, 수	■말초통, 시술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이지은	*	신장, 내분비, 유전	화, 목	수, (목), 금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강성길	*	소화기, 소아내시경	월, 목, (목), (수)	(수), 화, 금	소아내시경	김우철	*	소화기암, 유방암, 폐암, 뇌암	화, 목, (금), (수)	화, (화), 목	*사이버내시경센터			
	안소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수		김현정	*	비교기, 인공중, 항응고, 소아암, 두경부, 부인암	월, 수	화, (수), 목	치료관 확대 진료			
	일 반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사이버 방사선 나이프 중앙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금	화			
안과레이저(☎2400)	오중협	*	백내장, 녹내장, 라식, 라섹, 백내장, 수·녹내장	월, (화), 목	화	라식클리닉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수, 금	월, 수, 금				
	강성모	*	안성형, 사시	월, 수	금		산업의학과 (☎2861)	임종한	*	환경생물,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감염	화, 목	화, 목			
	일 반			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박신구	*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월, 금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월, 화, 수, 목, 금		김환철	*	직업성질환, 근로자건강증진	수	수				
	응급의학과(☎2301)	오남식	*	보철과	화, 금	월, 화, 목, 금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월, 화, 수, 목	화, 목	인공치아메시클리닉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치과 (☎2470)	이연화	*	교정과	수, 목	월, 수, 금		
		송경화	*	보존과	화, 수, 목	월, 화, 목			이연화	*	교정과	월, 금, 목	월, 화, 목		
		최돈욱	*	소아치과	화, 수, 목	월, 수, 목			송경화	*	보존과	화, 수, 목	월, 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최돈욱		*	소아치과	월, 수, 목	월, 수,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수	수				

## 국내 최초 3세대 초음파 암치료기 무통·무혈 하이프(HIFU)



### 3세대 초음파 암치료기 하이프(HIFU)는?

수술용 초음파 발생장치와 진단용 초음파 발생장치를 결합한 장비로써 실시간 암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암세포에 초음파를 집중 집속하여 온도 70~100도 이상 열을 가해 암세포를 괴사시켜 치료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 하이프의 장점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합병증 및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통원치료 및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시술시 무마취, 무통증 치료입니다.
- 정상세포 및 기관에 증독작용이 없고 환자 회복이 빠릅니다.
- 실시간 시술함으로써 정밀도가 높고 주위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단독, 반복, 병합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암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은 감소됩니다.
- 중앙세포의 자살 유도 작용으로 종양을 치료합니다.
- 췌장 및 말기암 환자의 치료와 통증 완화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 치료 가능한 질환

간암, 췌장암, 자궁근종,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후복강고형암, 악성 뼈종양, 악화된 말기 암환자의 통증 완화

#### 치료결과 예시

##### 간암



△ 치료전



△ 치료후

##### 췌장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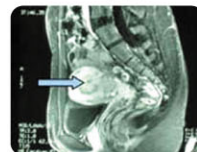


△ 치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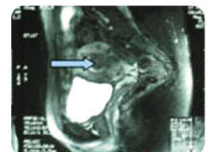


△ 치료후

##### 자궁근종



△ 치료전



△ 치료후